

익산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500만 그루 나무 심기 TF팀 구성, 종합계획 수립·시민참여 유도

익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도비를 포함 283억 원을 투입해 나무 심는 작업 뿐 아니라 산책로와 쉼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숲 등도 함께 조성한다.

시는 올해 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순차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이리북중과 남성중, 이리북초, 여산중 등 4곳에 명상 숲을 조성했고 국도 26호선 2km 구간 가로수, 폐 철도를 활용한 도시 숲 조성 등을 통해 이미 12만 8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와 함께 시민들도 함께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사)푸른이산가꾸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봄철

나무 나누주기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약 8천 그루의 나무를 분양했다.

하반기에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이달부터 제3일반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산업단지 일일 1.5ha 구간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3만여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희부지 10곳을 활용한 나무심기와 명상숲,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주기 행사와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함께 추진해 녹색공간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도시에 조성된 숲은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생활권 내 도시숲과 녹색공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체력증진을 위한 헬스 프로그램 제3기 지방아 물렸거라! 근육아 게 섰거라!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헬스프로그램 운영 참여대상자 모집

군산시보건소, 12일부터 23일까지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체력증진을 위한 헬스 프로그램 제3기 지방아 물렸거라! 근육아 게 섰거라!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주간 운영되며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비만 예방을 위해 개인별 체력 진단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효과적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 뿐만 아니라 개인별 사전·사후 체지방, 골격근량, BMI 등을 측정해 건강행태 변화에 따른 개선점도를 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은 물론 꾸준한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시민 중 평소 운동부족 등으로 비만을 동반한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야간반 200명 모집(주간 120명, 야간 80명)으로 운영한다.

전향태 보건소장은 "전문적인 운동 처방사의 체계적인 운동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으며 사전?후 체력측정을 통해 본인의 체력 변화도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증진실(☎460-3252, 32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지역자금 유입 효과 입증

사용처 안내 가맹점 제한 이후 매출 줄고 저축 증가

자립도시 군산시가 품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경제적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군산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이후 여신(대출)은 감소한 반면 수신(저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따르면 군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내역은 은행 예금기관 32개소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와 비은행 예금금융기관 12개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금융기관의 수신비율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월 대비 1.7%, 0.6%, 0.4%로 감소폭이 큰데 비해, 군산시 금융기관의 전월 대비 수신비율은 2.4%,

2.5%, 2.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0% 할인판매 되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안내 가맹점으로 제한하면서 지역자금이 역의 유출되지 않고 관내로 재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산시민들에게 군산사랑상품권이 제2의 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가맹점은 1만여개를 훌쩍 넘어섰고 관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 후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일부 가맹점들은 가맹점 플래카드 및 배너 등을 자체 제작하여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임을 홍보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

이선(앱)을 설치 후 가상계좌 입금이나 본인 계좌연결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구입한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결제 가능하다.

가맹점주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금액이 자동 정산되어 환급 통장으로 입금되며, 가맹점주가 없는 경우 점원들도 점원등록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가맹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9월 2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종이상품권 역시 휴대가 불편하던 점을 개선해 9월에는 현재 지폐 크기와 동일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기업·지역발전 사업 추진

원광대학교(총장 박영수)가 LINC+사업단 산하 기업지원센터와 지역산도센터를 중심으로 2019학년도 제1차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ICC/RCC 심의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대학의 전문기 집인인 교수진과 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혹은 시제품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지원 사업 중 하나이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평가위원단이 사업단에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기업협업센터와 지역협업센터를 의미하는 ICC 및 RCC는 대학 소속 부설연구소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혹은 지역기관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ICC는 Bio, Energy, Smart, Transportation을, RCC는 고도익산, 사회적경제, 행복도시를 특화 분야로 하고 있다.

LINC+사업단은 8월 중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및 ICC, RCC 사업을 신청한 교수들에게 결과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LINC+사업단장 송문규 교수는 "원광대 LINC+사업단의 최대 강점은 모든 사업에 대한 매뉴얼화 및 공정한 행정 시스템 완비"라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및 ICC, RCC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익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익산시는 7일 승리문화예술회관에서 승강기 고장 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와 중대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익산시 주관으로 익산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업체인 한국승강기안전공사와 함께 실시했으며 박철용 부시장, 공동주택·대형마트 승강기 관리자, 시민 등이 참가했다. 훈련에 앞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이용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물 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 공급 못받은 세대 신청

군산시가 '물 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중심 맞춤형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열악한 환경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수도설치를 포기하는 읍면지역 주민 및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개인 급수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까지 추진되며, 현재까지 16억2천6백만원을 투입해 2045세대에게 개인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여 수도물 공급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잔여예산을 투입해 아직까지도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수도과(454-5404)로 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공공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군산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7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및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공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을 오는 28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 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지방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9호의 공공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한국감정원 군산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